

지역경기 살리고 · 긴급운영자금 미리 준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8월 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제기금 온라인 가입자 전원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 쿠폰으로 전국 제로페

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며 월 300만원 한도로 적금(만기이율 3.0%)을 납입할 수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평균 5.7%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25%의 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후순위 가능)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태풍·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p 감면된 금리로 재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업대출 연체 증가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기피하는 가운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을 적극 지원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장은 “이번 공제기금 프로모션을 통해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목돈 마련과 함께 휴가자금, 재해복구자금, 명절자금 등 긴급한 운영자금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농업인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용)과 함께 2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5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김삼형 국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제주 에너지자립 기술 전학 · 관계기관 간담회

에너지 전환 선도지 제주서 지역 간 협력 기반 마련 · 기술 벤치마킹 추진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이하 '전북TP')는 지난 22~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에너지자립 기술 전학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가속화라는 국가적 기조에 발맞추어, 전북 지역의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구축과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와 에너지산업 인프라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전북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째, 제주 신재생에너지글로벌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운영 현황과 실시간 계통 연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운영 사례를 시찰하였다. 둘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류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형 RE100 모델과 분산전원 통합 운영기술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셋째,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2~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에너지자립 기술 전학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와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용 배터리 기술 등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의 실증 현장을 견학하였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발굴을 위해 △제주형 에너지자립 기술 현황 공유 △신재생 기반 전력망 운영기술 벤치마킹 △공공기관 간 협력 추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전북TP는 이번 견학과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지역 선진 사례를 토대로 전

북 지역 여건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마을 확산, 에너지 산업 R&D 및 실증 인프라 연계 전략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규택 전북TP 원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에서의 선진 사례 견학을 계기로 전북의 분산에너지 정책 및 산업 모델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복숭아 대축제' 개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에서는 23~24일 2일간, 본격적인 복숭아 철을 맞아 복숭아 대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 덕진구 원동 일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복숭아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실시한다. 원동 복숭아는 일조량이 풍부한 전주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매년 소

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는 북전주농협 APC 복숭아 공선회에서 엄선하여 선별된 당일 상품으로 신선도와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전주 원동 복숭아는 맛과 향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



의 우수성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소재철 건협 전북회장, 인구문제 해결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사회 각계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소재철 회장은 윤방섭 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

회 임근홍 회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유제영 회장을 지목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앞으로도 인구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철 회장은 “인구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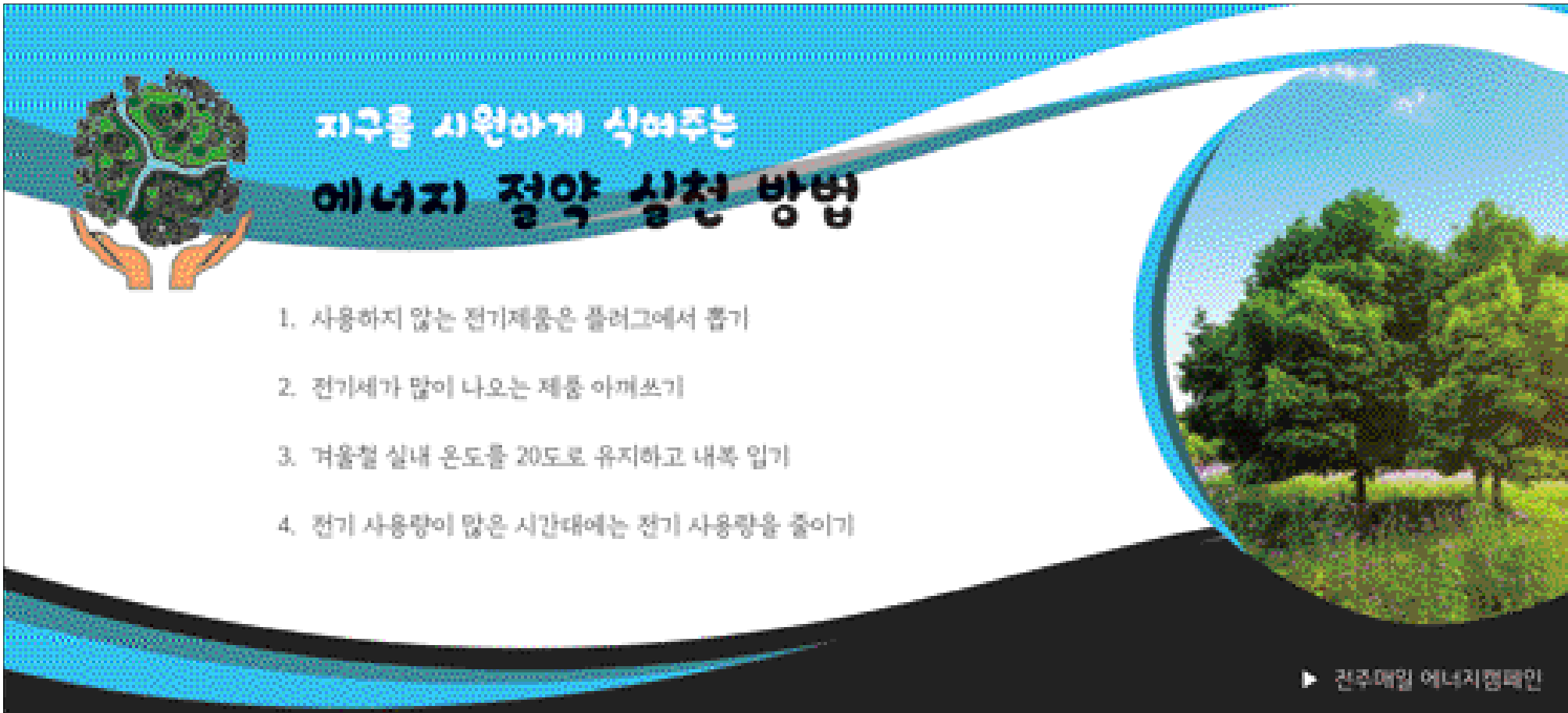


전기설비 고장 예방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전기안전공사-전력공사, 에너지 안전 협력체계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사장 김동철)과 전기설비 고장 예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에너지 전문기관 간의 협력으로, 전기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정전사고 감축을 위한 공동 업무 △디지털 전기안전관리 확

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및 전기 안전 관련 홍보 협력 △재난 시 기술지원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양 기관의 노력이 더해지며 디지털 업무 활성화와 전기안전 환경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본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행동맨